

“준공된 ‘산학연협력 및 최형섭연구동’은 새차원의 산·학·연 협력의 場”

총사업비 1백10억원을 들여
 최근 ‘산학연협력연구동 및 최형섭연구동’을
 준공한 KIST 박호군(朴虎君)원장은
 본지와 특별인터뷰에서
 “이번 최형섭연구동 준공을 계기로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 한국과학기술원(KIST) 박호군원장
 일자 : 2000년 6월 8일 오전10시
 취재 : 송해영(본지 객원기자)

■ KIST 운영에 바쁘실텐데도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준공된 ‘산학연협력연구동 및 최형섭연구동’의 준공을 축하드립니다. 이 연구동은 새로운 차원의 산학연 협력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우선 건립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 ‘산학연협력연구동 및 최형섭연구동’은 산업체, 대학, 연구소간 협력을 추진하는 가교이자 국가적 구심체로서 창의적인 원천기술개발과 기술이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동에는 최근 KIST가 홍릉지역 9개 연구기관과 주변 5개 대학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릉벤처밸리 사업단의 본부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one roof service’를 위한 국가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차원의 산학연 협력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동은 21세기를 맞아 KIST가 세계 초일류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로서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무한경쟁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난 5월24일 준공된 ‘연구동 전경’



준공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연구동의 명칭을 '최형섭연구동'으로 명명한 이유와 최형섭박사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이 연구동은 과학기술 발전에 평생을 헌신해오신 송곡 최형섭박사님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추진했습니다. 학문적 성과 뿐 아니라 과학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관리 등 행정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업적의 양과 질이 크고 깊으신 분이죠. 그분의 연구분야는 금속공학 전반에 걸쳐 기초에서 응용, 개발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그 업적 또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개발 정책 및 연구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우리 후배 과학도들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최형섭박사님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자랑스런 첨단연구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년만에 준공된 정부와 동문들의 합작품

■ 이러한 연구동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건립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요

▶ 총 사업비 1백1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중 62억원

정도는 정부에서 출연했고, 나머지 48억원은 기타 출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관련 산업계는 물론 KIST 임직원 및 동문들까지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 출연한 것입니다. 이 중에는 KIST의 기능직 직원이 국가의 과학발전에 써 달라며 거액을 출연한 것을 비롯 외국인 학자가 정기적으로 성금을 보내오는 등 각계에서 많은 정성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정성은 심화되어가는 국제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입니다.

■ 언제부터 계획되어 이번에 준공을 보게 된 것인지요, 건립 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 지난 94년 연구동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건립이 추진됐고, 95년 현재와 같은 규모의 건설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97년부터 건설이 시행돼 이후 정부의 출연과 동문, 임직원, 관련업체의 출연 등 각계의 정성을 모아 지난 해 12월 건물을 완공했고, 지난 5월 24일 비로소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전임 원장이셨던 김은영원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 이 연구동은 그 규모 등에 상당히 짜임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 연구동 건물은 연면적이 3천3백37평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연구실험실이 1천8백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평을 1모듈(Module)로 하여 모듈단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모듈별로 실험장비용 전원과 수도, 압축공기가 제공되며 독립적인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특성 분석센터와 연구정보실, 연구정보망, 초청정연구시설 등도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KIST 직원 뿐 아니라 입주기업들도 똑같이 아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형섭연구동’은 산업체, 대학, 연구소가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이자, 국가적 구심체로서 창의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용 계획을 소개해 주시지요.

▶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축적된 연구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와 산업계의 미래 수요에 대비한 기초선도기술 개발에 정진해 왔습니다. 이번 ‘최형섭연구동’ 준공을 계기로 기업 및 대학과의 협동연구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 산·학·연간 유기적인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 ‘최형섭연구동’에는 우영, 삼보, 태평양, 일진다이아몬드, 한국전자 등 5개 유망 기업의 연구센터 입주가 1차적으로 확정됐으며 이 가운데 플라즈마 표면개질 분야 권위자인 고석근박사는 백라이트 전문업체인 우영과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약물전달체계의 권위자인 정서영박사는 태평양과 각각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산·연 협력연구프로그램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IST 세계 10대 연구기관 진입 견인

■ 그간 KIST는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며 많은 공적을 쌓아 왔습니다. ‘최형섭연구동’의 건립은 이러한 KIST의 역할에 또다른 견인차의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됩니다.

▶ 저희 KIST는 30여년간 축적된 연구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세계 10대 연구기관 진입이라는



연구동 입구 흉상 앞에 선 최형섭박사(오른쪽)와 윤경 KIST동문회장

새 천년의 비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IST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와 국민의 폭넓은 성원에 힘입어 착실한 성장과 새로운 거듭나기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과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체제를 활성화하여 창조적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섭연구동’의 준공으로 새로운 차원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21세기를 맞이하여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KIST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흥릉벤처밸리사업도 지원구조가 완비되어 국가 차원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에 평생을 헌신해오신 송곡 최형섭박사님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추진된 만큼 우리 후배 과학도들은 그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자랑스런 첨단연구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올해 농사를 말해주지만 튼튼한 뿌리는 미래 농사를 보장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형섭연구동이 KIST 발전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튼튼한 뿌리가 되어 미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보장하는 기틀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SD**